

#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보육에 관한 비교 연구

김 계 중 (대전대 아동벤처산업학전공 강사)\*

## I. 연구의 목적

오늘날 첨단 문명의 시대에 놓여 있지만, 미래 사회를 위한 자녀양육이란 세기적인 사명이 여성의 역할임에는 변함이 없다.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 사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학력, 여성의식 고조, 여성 자신의 능력 개발, 핵가족화를 거치며 여성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왔다. 1993년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47.5%를 기록한 이래 오늘날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보육여건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문제로 남아 있다. 보육여건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선 국가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성자신에게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서 더 이상 가정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족 당 자녀수의 감소로 한, 두 자녀를 더욱더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열망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게되면, 아기는 영, 유아기의 중요한 시기를 다른 사람과 지내게 된다. 사실상 대리 양육자는 어머니대신 영, 유아의 각 발달단계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그동안 개인보육은 대부분 각 가정에서 해결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과거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1984년 이래 몇몇 사회기관에서 가정 탁아모를 양성, 직업으로서 인식되게끔 시도를 했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보육여건은 3세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집단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정도로 발달상 그 시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보육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일찍이 여성해방, 성의 평등화가 실현되어 대체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우리 나라보다 성차별이 덜한 프랑스에서의 개인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만한 일이다. 여성의 취업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어 개인보육의 형태와 방법에도 큰 변화를 겪어왔다. 보육형태의 선택은 취업모의 개인적 여건과 가정 사정에 따라 다르다. 보육제도가 우리 나라보다 앞서서 개인보육과 집단보육을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에도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가족 수당 지급처)의 자료에 의하면 프

\* 이 원고는 박사논문을 발췌 요약한 것임

랑스의 집단보육시설(다른 여러 형태의 집단보육시설 포함)은 신생아 100명당 62명만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양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의 8%만이 집단보육시설(crech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면 프랑스도 집단보육의 양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매우 다른 사회이지만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와 요구는 보편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나라의 개인보육 실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개인보육의 질적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보육의 형태와 정책에는 한국, 프랑스 양국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개인보육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을 했던 두 나라의 취업모들의 기대나 요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개인보육 각 형태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4. 사회계층에 따른 양국 취업모들의 기대나 요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취업모 70명(각 나라마다 35명씩)을 대상으로 두 나라의 수도 서울과 파리(Paris) 각각 15명씩, 수도 외곽도시 안산과 이브리 쉬르 쉐느(Ivry sur Seine) 각각 10명씩, 대도시 대전과 루앙(Rouen) 각각 10명씩, 1997년 4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3세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모와 약 1시간 정도씩 개방형식의 질문으로 연구자 자신이 직접 면담을 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취하여 자료화하고 분석하였다.

### 2. 면담내용

- 1)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맡겨졌을 때 적응 단계
- 2) 보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
- 3)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했던) 보육형태의 장. 단점
- 4) 보육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역할
- 5) 선호하는 보육형태
- 6) 피면담자의 신상정보(나이, 학력, 직업, 자녀수, 아이 아버지의 나이, 학력, 직업)

### 3. 자료분석과 자료처리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개 영역으로 범주화했다.

- 1) 일상적 보살핌(영양, 건강, 안전, 위생, 영. 유아의 생활리듬 존중, 신체적 보살핌, 의료처치)
- 2) 정서적 욕구(애정, 애착, 관심, 영. 유아의 편안함, 보육자의 인품, 보육자와 적응 상황)
- 3)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놀이, 활동, 글자와 숫자 익힘, 언어, 교구, 교안)
- 4) 사회화(사교성, 공동체와의 적응, 타인존중, 나눔, 예의, 순종, 자율성, 교육적 원칙)
- 5) 실제적 측면(보육시간표, 보육시간, 보육료, 보육장소와 집과의 거리, 보육자나 보육방법의 구할 수 있는 가능성, 보육 외의 다른 도움의 가능성, 보육자를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이가 병이 났을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 6) 관계적 측면 ; 부모와 보육자(신뢰감, 의사소통, 정보전달, 협조정도)
- 7) 보육의 일반적 조건(보육조건 ; 보육교사당 영.유아 인원, 공간, 시설, 설비, 보육자의 상태(건강, 나이, 체력), 직업적 수준(보육과정 양성의 여부 능력, 경험, 직업 의식, 보육수준), 보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부모의 사회적 계층은 3계층 ; 상류층, 중류층, 중류층이하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초하였으며, 부모사이에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지위를 우선하였다. 상류층은 의사, 약사, 교수, 연구원, 예술가(학력참조)등, 중류층은 회사원, 공무원, 비서, 교사 등등, 중류층이하는 노동자(수선공, 기계공,,), 서비스업 종사자, 자유업 종사자(상인, 미용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보육형태와 정책

한국, 프랑스, 양국의 개인보육형태에는 공통적으로 가족 범위내, 가정내 고용인(파출부, 방문보육), 가정 탁아모(無승인)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市로부터 승인된 유자격 가정 탁아모(assistante maternelle)가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유자격 가정 탁아모는 18세에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60시간의 보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가정에서 1명에서 3명의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PMI(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모자 건강 관리국)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유자격 가정 탁아모는 1977년이래 직업으로 인정, 널리 보급되어 있다. 재정적 혜택으로는 유자격 가정 탁아모를 고용한 가족을 위한 보조(AFEAMA: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가 지급되며 가정내 고용인을 채택했을 경우 역시 가정보육 수당

(AGED: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의 지원을 받는다.

## 2) 전반적인 기대와 요구의 만족도와 불만족도

두 나라 취업모들의 공통된 기대나 만족은 먼저 정서적 욕구와 일상적 보살핌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세미만의 영, 유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화인데 이 영역은 개인보육의 취약부분이기도 하다. 탁아모 가정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집단보육 보다는 적기 때문이다. 가장 언급이 덜된 영역으로는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이었는데 이 영역은 탁아모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이점은 한국 어머니들은 관계적 측면의 신뢰감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는 혈연중심의 가족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엿볼 수 있다. 가족에게는 일단 안심을 하지만, 자녀양육을 가족이외의 타인에게 맡길 경우, 가족에 의한 자녀양육 경험을 가진 절반이상의 한국 어머니들이 신뢰감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프랑스 취업모들은 영,유아 사회화와 실제적 측면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일찍부터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케 하려는 어머니들의 욕구나, 어머니들 입장에서 개인에게 맡겼을 때 보육시간의 융통성, 아이가 아팠을 때에도 맡길 수 있는지 여부와 보육료에 대해 언급을 했다.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라고 여기는 한국 어머니들은 위와 같은 항목의 실제적 측면에는 덜 민감했다. 유자격 가정 탁아모(assistante maternelle)들은 일상적 보살핌과 정서적 욕구가 직업인다운 수준임을 나타내주었고, 일반적 조건도 시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개인보육형태 보다 훨씬 더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기대나 불만족에 대한 대체적인 공통점은 정서적 욕구, 지적측면, 사회적 측면에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한국 어머니들이 관계적 측면에서 가족이외의 타인에게 맡길 경우 탁아모에 의한 보육에 불신감을 가장 많이 표현했으나 프랑스 어머니들의 언급은 적었다. 반면, 그들은 지적 측면에서 놀이 활동의 부족과 훈육 원칙의 결핍에 대해 한국 어머니들보다 더 큰 불만을 토로했다. 유자격 가정 탁아모의 경우에도 놀이, 활동의 부족, 교구 부족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개인보육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

## 3) 사회계층에 따른 기대와 요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

두 나라 상류층 어머니들의 공통적 기대나 요구의 만족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서적 욕구와 사회화를 강조했는데 프랑스 어머니들은 자녀의 편안함, 즉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로 안정된 상태를 원하며, 한국 취업모들은 보육자가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희망했다. 차이점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들이 지적 측면을 한층 더 강조했다, 프랑스 어머니들은 실제적 측면의 보육 시간, 자녀가 아플 경우라도 맡길 수 있는지의 여부, 가사 서비스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육은 프랑스보다는 역사가 짧고 덜 정착화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적 측면에서 개인주의 사고보다는 정(情)에 익숙한 한국에서가 프랑스보다 더 융통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나라의 중류층 취업모들의 공통된 기대나 만족은 상류층과 같이 정서적 욕구와 사회화에 지적 측면이 지적되었으며 안전과 보육료가 거론된 점이 주목된다. 다른점은 한국 어머니들이 지적발달 측면과 관계적 측면의 신뢰감, 보육자와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나, 프랑스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보다 비교적 보육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관계가 덜 복잡함을 알 수 있었다. 중류층이하의 공통적 기대나 요구는 일상적 보살핌, 정서적 욕구, 사회화였으며 특히 건강, 안전, 영양, 보육료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다른점은 사회화에서 한국 어머니들은 나눔을, 프랑스 어머니들은 공동체의 적응을 강조했다.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기본적인 숫자나 글자의 익힘을, 프랑스의 경우 놀이, 활동을 희망했다.

기대나 요구에 불만족은 상류층 취업모들의 공통점은 신뢰감으로 특히 가정 탁아모에게 맡겼을 때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음이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다른 점은 개인보육이 어느 영역보다도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의 취약점이 공통적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가족이나, 가정 탁아모는 지적 발달을 도울 수 없다는 아쉬움을, 프랑스의 경우는 놀이, 활동, 언어 습득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중류층 어머니들의 공통적 기대나 요구에 불만족은 일상적 보살핌과 정서적 욕구가 두드러졌으나, 사회화에 대한 아쉬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덜 언급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어머니들의 영,유아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에 이르면 가정 탁아모의 집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 부족으로 지루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이점은 역시 한국의 경우,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의 취약점에 대한 집착이 이 계층에서도 뚜렷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실제적 측면의 보육시간의 엄수나 보육료, 병이 난 아이를 맡기기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류층이하 취업모들의 공통점은 우선 정서적 욕구과 일상적 보살핌, 그리고 지적발달과 교육적 측면이 지적되었다.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관계적 측면에서 보육자와 편치않은 관계가 강조된 반면, 프랑스는 실제적 측면의 보육시간, 보육자 구하기가 용이치 않음을 토로했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프랑스 두나라의 3세미만의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양국의 취업모들의 보육에 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한 것을 면담을 통해 조사 비교 연구한 것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개인보육의 형태는 프랑스에는 유자격 가정 탁아모 제도가 있으며, 유자격 가정 탁아모나 가정 내의 고용인을 통한 보육에는 보조금이나 정부의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 양국 취업모들의 개인보육의 기대나 요구는 대체적으로 영, 유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일상적 보살핌과 정서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어머니들이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숫자나 글자를 일찍부터 접하게 하려는 지적 측면의 욕구와는 달리 프랑스 어머니들은 개인에게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접촉이 부족한 사회화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 입장에서의 실제적 측면과 보육의 일반적 조건에서 한국의 경우, 보육자와의 관계가 쉽지않음과 신뢰감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프랑스의 경우보다 보육자와의 관계가 복잡함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 어머니들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양립을 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더 관심이 많으며, 유자격 가정 탁아모의 제도가 있는 나라로서 보육의 일반적 조건에도 한국의 경우 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른 분석에서 다른점은 프랑스의 상류층에서도 실제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중류층과 중류층이하의 어머니들에게서는 한국의 경우 관계적 측면이 더 두드러졌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화가 더 중요시되었다. 선호하는 보육형태는 한국어머니들의 절반이상이 적어도 3세까지, 혹은 6세까지도 가족에게 맡기기를 원했으며, 프랑스의 어머니들은(1명제외) 개인보육과 집단보육의 병행을 희망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의 취업모들이 보육자와의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가족이외의 타인에 의한 보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개인보육의 발전은 멀게 느껴진다. 우리 나라에 취업모가 존재하는한, 대리양육이 지속된다면 프랑스에서 직업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보육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유자격 가정 탁아모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유아기의 양육자 태도가 향후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의미에서 전문교육 없이 단지 경험만으로 보육을 담당하는(파출부) 상황인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보육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외(1995).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양서원.  
김정자외(1993). 21세기 영.유아 보육. 한울.

- 김형국외(1994).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 박숙자(1990). 기혼여성과 탁아문제. 유아교육 연구소. 덕성여자 대학교.
- 서영숙외(1997). 보육학 개론. 양서원.
- 양옥승(1993). 탁아연구. 양서원.
- (1995). 탁아연구II. 양서원.
- 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 샌드라 스카지움/현은자외(1995).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서원
- ATTIAS-DONFUT, C, & SEGALEN, M.(1997). Grands-parents, la famille a travers les generations. Odile Jacob.
- BACUS, A.(1995). Faire garder son bebe, creche, assistante maternelle, garder a domicile. Marabout, Alleur(Belgique).
- BARDIN, L.(1997). L'analyse de contenu. PUF.
- DOLTO, F.(1985). Les etapes majeures de l'enfance. Gallimard
- GIAMPINO, S.(2000). Les meres qui travaillent sont-elles coupables? Albin Michel.
- GOLSE, B.(1998). Le developpement affectif et intellectuel de l'enfant. Masson.
- LATERRASSE, C, & BEAUNA, A.(1998). La psychologie de l'enfant. Les essentiels Milan.
- SINGLY de F,(1993). Sociologie de la famille contemporaine, Nathan.
- SAUSSE, S(1982). Mais qui va garder notre enfant? Casterman.
- Recherches et Prevision, l'accueil des jeunes enfants, politiques, valeurs, pratiques. CNAF, n 49, septembre, 1997.
- ZWOBADA SITBON, C.(1994). Influence des modes de garde prescolairelors de l'entree en maternelle. Paris X.